

연중 제 28 주일

기도서 451 면(B해)
 제1독서: 지혜 7, 7-11
 제2독서: 히브 4, 12-13
 복음: 마르 10, 17-30
 후 10, 17-27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
 화를 얻게 될 것이다.

(마르 10, 21).

강론



감사와 봉헌의 삶

한 기 호 신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마르코 10장 20절) 기도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계명이나 잘 지키고 양심거스리는 일을 하지 않고 부정을 일삼거나 불의하게 착취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지 않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 생명까지도 속죄의 희생제물로 바쳐주신 그 무한한 그리고 엄청난 사랑에 대해 얼마만큼 감사드리고 기쁘게 살며 또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바치느냐에 있다. 이렇게 볼때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마음, 생활, 재물까지도 희생제물로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진정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로 여길줄 아는 사람이다. 집이나 토지나 재산보다도 심지어는 부모 형제 처자보다도 더 귀중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에 내 재물이 필요하다면 또는 나의 시간이나 사랑이 필요하다면 나의 재물, 시간, 목숨까지도 주님의 은혜로서 받은 내가 가진 것을 바칠줄 아는 마음과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과연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마비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살피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온통 세속의 재물이나 번잡한 일들에 가리워져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느님의 것을 사용하는 관리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께서는 하느님과 재물—이 두 주인을—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지상적 재물에 온통 마음을 붙잡아 매어두면서 동시에 하느님께 대한 마음이 매일 수 없다는 말씀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 내 중심적인 생활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향한 감사와 봉헌으로 응답되는 생활이 되어야겠다.

(삼례 천주교회)



소리 바쁘다 바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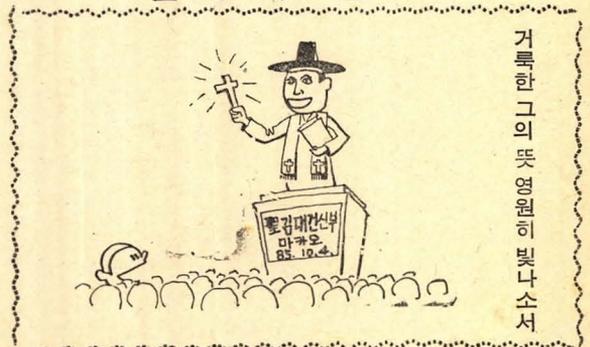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모처럼 서울에 오게되면 조금은 얼얼하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물결이 눈에 띄게 빨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수많은 인파가 시내버스를 향해서 이리 뛰고 저리 물리고 하는데서부터 냇을 빼기 시작한다. 자동차들의 홍수, 건물의 숲, 매캐한 매연, 그 어느 하나도 마음에 드는게 없다. 한참 뒤에서야 이것이 바로 생존경쟁이라는 것인가 해서 정신이 들고, 그러다 보면 서울사람들에 대한 존경심(?)같은 것이 서서히 일기 시작한다. 어쩌면 이런 곳에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하기야 사는 모습이란 시골이나 도시나 마찬가지다. 다만 하나, 움직이는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조용한 움직임이긴 빠른 움직임이긴간에 그날 그날의 삶을 꾸미는 것은 다같이 진지하고, 나아가서는 엄숙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은 농촌에서 일하는 농부들도 눈코뜰사이 없이 창조사업에 동참하기는 매양 한가지다. 도시 번두리의 조그마한 봉제공장에서 수고하는 처녀들도 그렇고.

지금도 계절적으로 보아 거두어들이는 때이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밤을 새워 양수기로 물을 뽑고, 비가 너무 많으면 물꼬를 열기에 바쁘게 돌아가던 한해의 농사를 결산하는 때이다. 서있는 벼에서까지 새싹이 돋는 나쁜 기상상태가 있기는 했어도, 이제는 거두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밤낮을 구별하지 못하며 공부하던 학생들의 결산서가 나오는 때도 머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 보아야 하는 때인지도 모른다. 기고만장해서 이리저리 뛰던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에 앞서서 하루를 결산하는 자세로.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면서도 항상 영원한 내일을 기약하면서 살아야 한다. 바쁘게, 그리고 조용히.

순정이 산책



거룩한 그의 뜻영원히 빛나소서

성서교실 ⑧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 안된다. (마 태19:6)

이혼문제를 놓고 마태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의 입장이 다소 다르다. (1)마태오의 경우, ①바리사이파 사람 : 어떤 이유로든 이혼이 가능한가? ②예수 : 창세기를 보라. 그것은 불가하다. ①바리사이파 사람 : 모세는 왜 허락했는가? ③예수 : 모세가 할 수 없이 허락한 것이다. 품행이 나쁜 경우 외는 이혼이 불가하다. (2)마르코의 경우, ①바리사이파 사람 : 이혼해도 좋습니까? ③예수 : 모세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①바리사이파 사람 : 이혼장을 써주면 그것은 가능하다. ②예수 : 모세가 할 수 없이 그랬다. 창세기에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혼이 불가하다. 마태오의 「무엇이든지 이유가 닿기만 하면」(19:3), 「음행한 까닭 외」(19:9) 등의 말은 마르코 복음(10:2-12)에 만나온다. 따라서 마르코는 이혼 절대불가를 말하고 있는것 같다.

모세는 인간이며, 한 정치가였다. 이점에 있어서 그는 고린토전서 7장의 바오로와 흡사하다. 그러나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예수의 논법에 의하면 모세가 하느님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창세기와 신명기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하나는 결혼의 최고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인간에게 적용된 저급한 실제훈(實際訓)이다. 결혼은 인간 의지에 의한 계약이 아니다. 창세기에 보면, 남자의 갈비뼈에서 지어진 여자는 다시 그의 가슴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창조자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그의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 같은 원리에 기초를 둔 새로운 한 사람의 창조이다. 창조가 하느님의 것인 한 사람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결혼관」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가정은 아주 복잡하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7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혼은 신사(神事)이다. 하느님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이지, 인간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 안에 행복이 없다 하더라도, 「눈물」로 하느님의 뜻이 이뤄진다면, 이것이 좋은 결혼이다.



□ 시대의 징표

**** 승리는 항상 백성에게 ****

개학과 더불어 그 이후 학원가는 계속 시끄럽고 국제 경기 침체로 생산공장들도 불황이며 강대국의 영풍한 트집으로 한국 경제는 어리둥절해 있으며 기업들은 감원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농어민들마저 그들의 푸대접에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학생집회에 참석하려던 국회의원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였다 하여 기소되었고 이 문제를 두고 여야당들은 극한적 상황을 치달고 있다. 학원안정법을 들먹이지만 법이 없어서 학원이 시끄럽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요는 법보다 정의구현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악은 악을 낳고 작은 일로 큰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것만 같은 격양된 분위기 속에 국민들은 공멸히 불안해 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의사회구현을 염원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다. 이상은 비현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상을 추구한다면 이상의 완전한 구현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상에 가까워져야 하지는 않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어둡다. 이 어두운 밤을 밝힐 빛은 없는가! 학생은 학생대로 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자기가 빛이니 자기를 마르라고 하지만 참 빛은 아무데도 없는듯 하다. 그럼 우리는 이대로 영원히 어둠속을 헤매며 살아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각종 매스컴들은 누구가 잘났고 누구는 잘 못한다고 떠들고 있으나, 역사가 한번 바뀌면 그 허구성이 백일하에 적나라하게 폭로되곤 하는 역사적 회극을 우리는 몇번씩이나 보았다. 이번에는 그런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각자 양심적으로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자. 학생은 학생으로 돌아가 학업에 전념하고 군인은 병사로 돌아가 국방에 전념하고 근로자들은 일터에서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농어민들은 자기 생업에 전념하고 기업인들은 양심적 기업활동으로 국가경제를 진흥시키고 정치가들은 양심적으로 정치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적당히 속임수로 사람들을 기만하려는 어리석은 알은 암수를 쓰려고 하지 말자. 정의는 드러나게 마련이고 악은 심판받을을 우리는 믿고있지 않는가.

이 세상에 이상사회를 건설하자. 즉 우리는 빛이 되어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자.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밝고 맑은 세상으로 만들 능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길이야말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국을 이기고, 아울러 민족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희소식!
간경화, 만성간염 및 각종 암등 난치병 무료상담 안내
※ 불치의 간경화의 경우 90% 이상의 놀라운 성공률!
건강 무료상담!
일 시 : 1985. 10. 14(월) 오후 2시
장 소 : 전주(구, 성모병원) 3층 309호실
강 사 : W.B.L 12207. 자연식품 연구소
최 중 명(노렌조) 수사님
※ 문의전화 : 72-3925

결혼·약혼·회갑(출장 환영)
약혼복·드레스 무료대여
영미칼라사진관
급속(면허용) 각종서투사진
신부야의 촬영, 비디오 촬영
(신자분은 특별촬영)
전주시 교동 경기전사거리
(성심여고옆) ☎ ②8507
(주) 조 동 호(노렌조)

무 지 개
*장 북
*도장 · 시계수리
*매 들
무지개가죽 내
구. 성모병원 3층
☎ 2-2523

교 구 소 식

- ☆ **축! 건진**: 오룡동천주교회, 10월 20일 공식미사 중, 주례-박정일 주교님
1. 교리교사 교구·지구 임원 및 각 본당 회장단 모임: 14일 오후 6시30분, 가톨릭센터
 2. 베델성서 제2기 졸업생 동창회 성서모임: 때-20일 오전 10시, 장소-가톨릭센터 주례-‘복시록’, 준비물-미사도구·성서 필히 지참, 지도-김준호 신부
 3. 어린양들의 소년 꾸리아: 13일 오후 1시30분, 장소-전동성당 사제관 2층
 4. 10월 성소자 모임: 20일 오후 2시, 주제-열매맺는 삶, 대상-교·대·일반(남자) 지참물-미사도구·필기도구, 장소-센타
 5. 중·고지도자 보수 교육 실시: 11월 2일~3일, 장소-가톨릭센터
내용-지도자의 자세 및 사도적 사명, 회비-8천원
접수-11월 2일(토) 오후 1시반까지, 교육국
 6. **감사합니다**: 동산천주교회 성전 건립에 협조해준 본당들
서울 화양동본당: 현금-1,135,000원, 특별현금-100,000원, 촛대-300조(600만원)
계-7,235,000원
이리 창인동본당: 현금-530,000원, 촛대-98조(196만원), 계-2,490,000원
군산 둔율동본당: 현금-871,260원, 특별현금-190,000원, 촛대-100조(200만원)
계-3,061,260원
※ 우리 모두 동산 성전 건립에 한몫을 담당합니다
 7. **제5기 혼인강좌**: 일시-28일~11월 1일 오후 7시~9시, 가톨릭센터
대상-만 19세 이상 미혼 남녀 및 젊은 부부
 8. **무사합니다**: 교구에서 파견되어 멕시코시티에서 지금 언어공부 하고 계시는 세분의 해의 선교신부님 모두 이번 지진사태에서 무사하셨음을 알려 드리면서 그분들을 위해 더욱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의선교사 사제 주소: 정승현, 김윤섭, 방의성 신부님
Apdo 22009 TLALPAN 14000 México, D. F MEXICO 전화 573-3000~2
은퇴 사제: 김종택 신부님: 520 전주시 인후동 1가 470-9 [유정아파트 2동 206호
 9. **제3지구 교리교사 월례회**: 14일 오후 6시, 팔마성당
- **축! 영명**: 성 갈리스도(14일) 정태현 신부님
십자가의 성 바오로(19일) 김준호 신부님. 축하합니다.

성 소 자 선 발

1. 모집일시: 10월 21일까지
2. 선발대상: 학구가 편제되지 않은 지역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
3. 선발인원: 10명
4. 선발기준: ①학구 편제가 되지 않은 지역 중학교 3년생, ②사제 성소에 뜻을 둔 학생, ③부모의 동의를 얻은자, ④본당신부의 추천을 받은자
5. 육성지침: ①선발된 학생은 전주시내 고등학교 입학에 위한 연합고사를 응시해야 한다, ②교구에서 마련한 장소에서 공동생활을 한다, ③학비는 교구부담(년간 4기분), ④식비 및 책값, 기타 잡비 가정부담(식비 70만원)
6. 첨부서류: ①중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②호적등본 1통, ③본인 영세 및 견진증명서1통, ④부모 혼인증명서, ⑤사제 성소자 학교 입학원서1통
7. 접수처: 교구청 교육국(☎0041~3)

요심이 (636) 김병오



교 사 초빙

1. 초빙인원: 영어과 1명
 2. 근무처: 전주 해성중학교
 3. 제출서류: 1) 고등학교·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2) 이력서(연락처 명시)
3) 교사자격증 사본 각1부
 4. 제출기일: 1985년 10월 22일까지
 5. 접수처: 전주해성중학교 사무과
- ※ 1차 서류전형에 통과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겠음
1985년 10월
학교법인 해성학원

숨 리 쌀 집

*취급품목: 곡류일절·연탄(신속 배달함)
이리시 영등동 261-35
전 화 3-8847-2-7817
박 용 규(베드로)·박 민 규(야고버)

특별 성령쇄신 세미나 안내

일 시: 10. 19~11. 30(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장 소: 중 앙 성 당
지 도: 서울 가나안 성령봉사회
접 수: 10월 18일까지 마감(중앙성당 사무실)
회 비: 3,000원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솔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아파트 75-6389 사도회장 이 흥 재

- 1. 축! 본당의 날 경축행사: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중앙여고에서, 모두 도시락을 준비하여 중앙여고에서 만남시다
오늘의 본당미사-오전 6시, 오후 7시, 아파트성당-오전 7시
2. 축! 보좌신부님 영명축일: 오늘은 우리 보좌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하식-오늘 경축미사 직후
3. 견진 준비교리: 14일~16일까지 일반-오전 10시~11시, 직장인-저녁 8시~9시까지 견진성사-27일 본당에서 오늘까지 접수하세요
4. 교직자 회의: 14일 오후 8시,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5. 본당 꾸리아 회합 연기: 본당의날 관계로 다음주(20일) 오후 2시로 연기합니다
6. 전자올갠기금 납부하신 분: 정길화씨-10주좌, 문예순씨-2주좌, 전인숙·박양금·이경애·전점순-각 1주좌씩, 계-80,000원 현금누계-1,632,000원
7. 성심부녀회: 성지순례-17일~18일
8. 공소 순회미사: 19일 저녁 8시, 황운리공소
9. 금주전례: 제4주, 차주는 제1주가 담당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451,170원 교무금: 333,000원 신축금: 172,000원 군인헌금: 188,57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2. 성영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어머니성가대 단합대회: 14일 7시30분 출발, 속리산
4. 주일학교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첫영성체 교리: 지난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 빠진 어린이는 내일부터 꼭 보내주세요
교리시간: 평일-오후 4시, 토·일요일-오후 2시
6. 미사시간 변경: 새벽미사 5시30분을 6시로, 저녁미사 7시30분을 7시로 변경합니다
7. 교무금: 미수되신 분은 속히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전교주일: 20일(다음주일) 특별헌금 있습니다
9. 유아세례: 25일 저녁미사 후(미리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10. 전례위원 모임: 20일 공식미사 후
※ 전례 해설하시는 분은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11. 금주 성당청소: 월-사랑하오신 어머니pr
토-순결하신 어머니pr
차주성당청소: 월-다위의 탑pr, 토-셋별pr
12. 금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이갑진 ②정동민
차주전례: 해설-정운주, 독서-①이기배 ②김운자
□ 지난주 봉헌금: 200,205원 교무금: 618,46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정 우

- 1. 미사시간 변경: 평일-저녁 7시30분
주일: 학생미사-오전 8시30분
공식미사-오전 10시30분
어린이미사-오후 3시
2. 성가연습: 공식미사전 30분간
3. 청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빈첸시오회: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5. 봉사활동: 추수 일손이 모자라는 농가 신청하세요
(빈첸시오회 봉사활동)
6. 어린이 보례식: 27일 공식미사 후
7. 치과진료: 27일 공식미사 후
8. 우정의 날: 30일 저녁 추수감사 지향
※농산물 준비 나눔의 잔치 계획
9. 화장실 이전 및 운동장 환경정리 사업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성금 접수합니다

- 10. 금주전례: 해설-김은수, 독서-강성호·양에환
봉헌-황남용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유동, 독서-강덕용·유순천
봉헌-이정우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17,450원 교무금: 125,000원 군인주일금: 51,7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도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사도회: 오늘(13일) 공식미사 후
2. 반장님 릴레이: 오늘(13일)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모임: 오늘(13일) 오후 2시
4. 성심회: 오늘(13일) 오후 2시
5. 견진교리: 중·고생은 9시 미사후 수녀님께서 지도함
일반은 공식미사 후 신부님께서 지도함
6. 오늘(13일) 미사는 동산촌 신부님께서 집전합니다
동산촌성당 신축기금 봉헌금을 신자 여러분의 많은 후원 바랍니다
7. 다음주 전례

Table with 5 columns: 미사, 해설, 1독서, 2독서, 기도. Rows include 첫미사, 공식미사, 저녁미사 with corresponding details.

- 지난주 봉헌금: 일반-319,890원, 중고생-14,410원
주일학교-6,850원, 계-341,150원
교무금: 311,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살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끈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공식미사 후
3. 성화회·교미시움: 다음주
4. 소년꾸리아: 13일 오후 1시30분, 사제관
5. 부활반 예비신자 안내: 학생-토요일 오후 4시30분
청년-수요일 오후 7시30분, 일반-일요일 오전11시
6. 수세식 화장실공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20만원-유태안, 2만원-유남순·이시몬, 1만원-안재진, 5천원-강안자
7. 다음주 봉헌담당: 김병오 부부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영희, 독서-①김동원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이중두 ②백중흠
9.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평일-저녁미사 오후 7시
□ 지난주 봉헌금: 935,160원 교무금: 959,000원 군인주일금: 283,1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 1. 성지순례: 국-충남 솔피-해미, 매-11월 7일
회비-5,000원(자모회원은 2,000원)
신청기간-13일~20일(본당사무실)
2. 글라라회-공식미사 후, 성모회-차주
3. 교육관 신축봉헌 목주기도: 785단, 누계-102,040단
4. 고갈리소도 수녀회: 18일까지 휴가입니다
5. 건축헌금(납입자): 100만원-김동선, 20만원-김주영, 10만원-양광식, 5만원-김삼호·황민자·김동안, 2만원-익명·배영순, 1만원-익명·조선자
□ 지난주 봉헌금: 464,600원 교무금: 397,000원 건축헌금: 1,510,000원